

‘작은 신의 아이들’, 한국형 범죄 스릴러의 진화



OCN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은 한국형 범죄 수사 장르물의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실험작이다.

과학 수사·토속신앙 결합 눈길 끌어 흡입력 있는 전개·연기력 등 입소문

영화이다. 형사 천재인(김지환 분)과 피해자의 죽음에 빙의되는 능력을 지닌 신기 있는 형사 김단(김유빈)이 1994년 벌어진 '천국의 문' 31명 집단 병사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추적 스릴러로 과학 수사와 토속신앙을 결합한 신선함으로 눈길을 끌었다.

낮선 소재 때문에 처음부터 호응을 얻진 못했지만, 흡입력 있는 전개와 빈틈없는 각본, 김지환과 김유빈 등 주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등이 입소문을 탔다. 중반부터 요즘세를 탄 시청률은 마지막 회에서 3.926%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닐슨 코리아, 전

국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흔히 장르물에서 나타나는 약점 중 하나인 느린 도돌이표 전개, 이른바 '고구마 전개' 없이 호쾌하게 사건을 해결해갔다. 제2회 '천국의 문' 사건을 계획한 양목사(장광)가 최후를 맞이했고 대통령 후보 국한주(이재용)도 완벽하게 몰락했다. 주하민(심희섭)은 김단의 설득에 마음을 고쳐먹고 정의 구현에 일조했다.

시사 다큐멘터리 작가 출신인 한우리 작가의 취재력과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천재인이 과학 수사에 일가견 있는 형사로 나오는 만큼 첨단 수사 기법의 묘사가 뛰어났다는 평가.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 김단

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가는 장면으로 놓칠 수 있는 휴머니즘을 다시금 일깨우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강지환 김유빈의 몸 사리지 않는 연기는 비현실적인 설정에도 100% 몰입할 수 있게 한 힘이였다. 감지환은 유쾌함과 진지함을 오가며 감지환이 할 수 있는 천재인을 완성했다. 김유빈은 사실적인 병의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아버지(안길강)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모습이나,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등 감정 연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듯 과학 수사라는 장르에 빙의, 무속 등 한국적 요소를 더해 재미와 의미 모두 잡았다는 호평 속에 '작은 신의 아이들' 후속으로는 한기인, 신현민, 최희서, 구재이 주연의 '미스트리스'가 방송된다.

5월 '어벤져스3'에 맞서는韓영화들



이창동 감독의 '버닝' 개봉이 확정되면서 5월 한국영화 라인업이 윤곽을 잡았다. 5월 국장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3)'가 막대한 몰입공세로 흥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맞설 한국영화가 이 속속 개봉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어벤져스3'는 개봉을 이틀 앞둔 23일 예매율이 98%를 넘었다. 예매관객수도 70만명을 넘었다. 4월 비수기에 히트치는 국장들은 '어벤져스3'로 스크린을 도배할 태세다.

같은 날 '살인소설'과 '클레어의 카메라' 신 전래동화 등 한국영화가 예상돼 칸영화제에서 전제지는 소식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버닝'은 개봉을 하루 앞당길 수도 있다. 5월16일 청불 슈퍼히어로 '네드플러그'가 개봉하기 때문. '어벤져스3' 개봉과 3주 차이가 나는 데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라 관객층이 다른 점도 개봉 시기 조정에 영향을 줄 것 같다.

5월24일에는 이해영 감독의 '독피인'이 개봉한다. '독피인'은 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형사와 마약 판매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예상된다. '어벤져스3'와 한 달 차이가 나기에 '독피인'의 경쟁 상대는 '버닝'과 '네드플러그'가 될 전망이다. 세 편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예상돼 19금 영화 삼색 대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은 경쟁작들이 적다는 것도 ' 챔피언'의 맞붙 전라에 한몫했다. 공휴일 국장을 찾은 관객들을 상대로 '어벤져스3' 낙수효과까지 고려한 개봉전략이다.

'레슬러'는 '어벤져스3'와 2주 차 이로 거리를 벌여 5월9일 개봉한다. 유제진 주연의 가족영화다. 공휴일을 포기하더라도 '어벤져스3'와 맞붙을 계획이다. '어벤져스3'를 찾는 관객이 주춤하면서 스크린 도배가 벌어지는 틈새를 노린다. 그나마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 개봉으로 앞당겼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5월17일 개봉한다. 제7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버닝'은 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5월19일 칸영화제 시상식이 열리기에 수상할 경우 칸 마케팅이 주효할 전망이다. '버닝'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예상돼 칸영화제에서 전제지는 소식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버닝'은 개봉을 하루 앞당길 수도 있다. 5월16일 청불 슈퍼히어로 '네드플러그'가 개봉하기 때문. '어벤져스3' 개봉과 3주 차이가 나는 데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라 관객층이 다른 점도 개봉 시기 조정에 영향을 줄 것 같다.

5월24일에는 이해영 감독의 '독피인'이 개봉한다. '독피인'은 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형사와 마약 판매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예상된다. '어벤져스3'와 한 달 차이가 나기에 '독피인'의 경쟁 상대는 '버닝'과 '네드플러그'가 될 전망이다. 세 편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예상돼 19금 영화 삼색 대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같이 살래요’의 히든카드, 중년 로맨스 通했다



‘같이 살래요’가 색다른 로맨스 포 공감과 재미까지 잡았다.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는 유쾌한 감동을 담은 부모 세대부터 자시대까지 가족 로맨스를 포하며 방송 12회 만에 시청률 30%

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높은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같이 살래요'만의 히든카드가 있다. 바로 60대의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 박효섭(유동근 분)과 이미연(장미희 분)은 장년만의 연애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같이 살래요'의 연평대별 다양한 컷들을 속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유동근과 장미희의 불타는 청춘이다. 두 중년 배우의 연기 양상은 은 은의 몰입도를 높여며 남녀 케미스트리를 뽐내고 있다.

앞서 윤창범 PD는 '같이 살래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주말극의 차별성으로 중장년의 연애를 강조하며 "중년 커플이 많은 공감을 자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작진의 포부로 '같이 살래요'는 장년들의 애환만으로도 설레는 로맨스를 담았다.

박효섭과 이미연은 옛 추억을 돌이키며 이렇듯이기도, 그리워하기도 했다. 청춘 시절처럼 아직도 뜨거운 열의 사랑을 보는 자식들의 반응 역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간 박효섭과 이미연의 이야기는 장년층의 시청자들에게는 공감할, 젊은 층에게는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중이다. 또한 자식들의 반대 속에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식상한 주말 드라마를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같이 살래요'는 전세대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드라마로 성장하고 있다. 집작 '황금빛 내 인생'처럼 시청률 40% 돌파까지 기대된다.

‘1박2일’ 김준호 엄마손 밥상 먹방 최고 시청률



'1박 2일' 김준호에게 거짓말처럼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던 행운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방극장을 흐트란 미소로 번지게 했다. 큰형을 생각하는 다섯 동생들의 찌든 형제애와 아들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전지전 사랑까지, 김준호의 코끝을 찡하게 만든 '김준호 행운조작단'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박 2일' 코너 시청률은 전국 기준 14.8%, 수도권 기준 13.9%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안방극장에 따뜻한 웃음과 박진감을 선사했다. 또한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김준호의 엄마손 밥상 먹방 장면은 수도권 기준 16.1%까지 치솟으며 변함없이 주말 저녁을 책임지는 일요 저녁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막강 1위의 지력을 입증했다.

최고 시청률 16.1%를 기록한 장면은 저녁 북북북에서 이진 김준호가 자신의 어머니가 손수 만든 김준호 가정식 밥상을 먹는 모습. 김준호는 산해진미가 가득한 밥상에 잇몸미소를 지으며 산적에서 갈비찜, 전복구이, 전, 왕갈비탕까지

지 보기만해도 군침이 절로 흐르는 음식을 푹푹 흡입했다.

이런 김준호의 먹스러운 모습에 데프콘은 "난 어수시개까지 다 먹는다"며 호언장담했고 급기야 게임에서 '한준호'팀 차태현-데프콘-김준호가 김준호의 결을 하이 에너지로 모여들어 시청자들을 배꼽잡게 했다.

특히 김준호는 음식 하나하나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영상 편집 촬영 도중 어머니와 동생이 실제 등장해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항상 북북북 미션에 실패해 끼니를 제때 못 먹는 김준호를 위한 어머니의 특별 밥상으로 바다처럼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까지 엿보게 해 시청자들을 푹푹하게 만들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 (연출 유이롱/이하 1박 2일)에서는 김준호-

차태현-데프콘-김준호-윤동구-정준영과 함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로 봄나들이를 떠난 '김준호 행운조작단'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큰형 김준호에게 하루 동안이라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김준호 행운조작단', 비록 조작으로 이뤄진 행운이지만 김준호의 결을 "운 좋은 곳, 행운을 부르는 곳"으로 기억하게 된 이상으로 그에게 '1박 2일' 다섯 동생들과의 만남은 일확 천금보다 더 값진 행운일 것이다. 여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의 따뜻한 미소까지 확인하게 된 김준호말로 '1박 2일' 진정한 행운날일 것이다.

한편, 김준호-차태현-데프콘-김종민-윤동구-정준영과 함께 하는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은 매 회 새롭고 설레는 여행 에피소드 속에 꾸밈없는 웃음을 선사하며 주말 예능 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음력 3월 9일)

- ▶ **쥐** 1, 3, 4월생 애정은 방향하지 않啦.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1, 7, 10월생 성취 욕기 잃지 말고 지혜를 모을 때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음을 알라.
- ▶ **사슴** 4, 8, 12월생 목표를 높이고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라.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허영심도 버리며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1, 7, 8월생 남과 돈을 주고받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밟아라. 욕심은 실패 원인이 된다.
- ▶ **황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르지 않아 크게 실망하겠다. 굳이 애쓰지 말고 현상유지에 힘쓰라. 1, 7, 8월생 손익 계산을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인정을 받는다. 조금씩 굴지 말고 인내하라. 2, 7, 8월생 행운이 온다.
- ▶ **원숭이** 발이 무거워도 혼신의 힘을 다하라. 지금은 불확기인 만큼 매사 실수 없이 처리하고 가볍게 보지 말라.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때 사업과 가정이 편안해진다. 지난 것은 잊고 안식하라.

- ▶ **물고기** 그의욕과 재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갖은 난관이 있겠지만 무엇이든 두려워라. 1, 7, 8월생 성취 욕심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할 때 얻는 것이 많겠다. 1, 7, 10월생 성취 욕심하지 말고 가까이하여 상부상조하라.
- ▶ **새** 1, 7, 8월생 성취 욕심하는 만큼 얻는다. 상대만 탓하지 말고 나도 노력해야 한다. 1, 7, 12월생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결과가 좋지 않다. 동업하거나 친지, 윗사람 조언에 귀 기울여라.
- ▶ **말** 혼자 살면 편하게 살 것 같고, 작시를 낭만도 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으나 딸 하나로는 더욱 힘들다. 종교로 마음을 잡으려 해도 힘들다. 4, 10, 11월생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다.
- ▶ **돼지** 금융계통에 중사하는 사람, 음식업 경영하는 사람 중 6, 8, 12월생 1, 7, 8월생 내 것 두시고 남의 것마저 탐내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상대가 3, 5, 10월생이면 더욱 조심하라.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이 나빠 멀어진다.

- ▶ **물소** 냉정한 판단에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라. 가장 믿는 사람과 금전 관계로 멀어지고 있을 듯하다. 한 말과 행동으로 언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7, 10월생 1, 7, 8월생 성취 욕심은 꿈을 잘 꾸는 생각하면 로도를 사라.
- ▶ **꿩** 병, 돼지, 용미를 잡고 싶지만 뜻대로 안 돼 속상할 듯. 2, 4, 6월생 이곳은 북극이 아니다. 바다가 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라. 음식업, 커리어문점, 비디오평업종 종사자는 잘 어울린다.
- ▶ **개** 3, 4, 9월생 1, 7, 8월생 애정은 조건 때문에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 산다 해도 불화가 연속할 수다. 다시 한번 좀 더 실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애정이나 사업과 직장의 답답한 문제가 서서히 풀린다. 남쪽에서 하는 일은 길하다.
- ▶ **돼지** 기분 나쁜 대로 약속하지 말라. 그 약속을 지키려다 할 일도 제대로 못 한다. 1, 7, 8월생 약속은 더욱 신경 쓰인다. 5, 7, 9월생 가족에게 신병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남쪽과 서쪽이 길하다. 흰색, 검은색 옷은 자신감을 주니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